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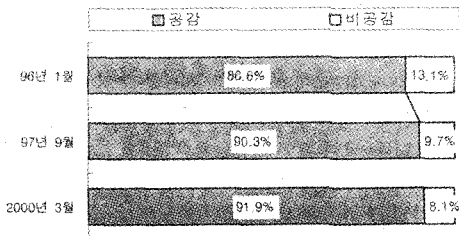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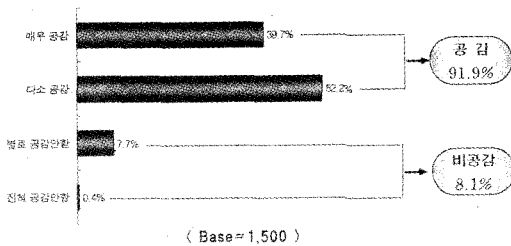
# 21세기 국민 환경의식조사(4)

자료제공 환경부

## 2.2. "환경문제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"는 의견

### 결과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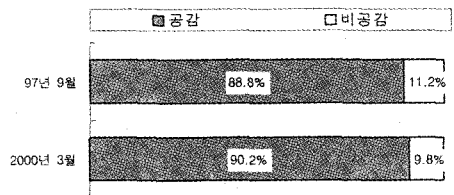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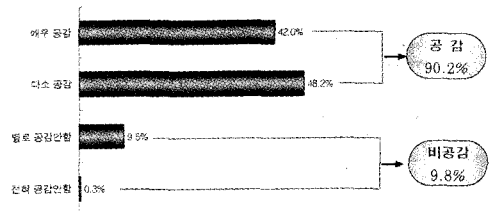
□ 이번 조사에서 '공감한다'는 의견은 91.9%로 나타나, 지난 96년 1월 실시된「한국환경기술개발원」의 조사 결과(86.6%)와 비교하여 5.3% 증가, 97년 9월 「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」의 조사 결과(90.3%) 보다는 1.6% 증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



## 2.3. "환경산업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므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"는 의견

### 결과분석

□ 이번 조사에서 '공감한다'는 의견은 90.2%(매우 공감 42.0%, 다소 공감 48.2%)로 나타난 반면, '공감하지 않는다'는 부정적 의견은 9.8%로 나타나, 환경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최첨단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. 또한, 97년 9월 「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」의 조사 결과(88.8%)와 비교하여 공감도가 1.4%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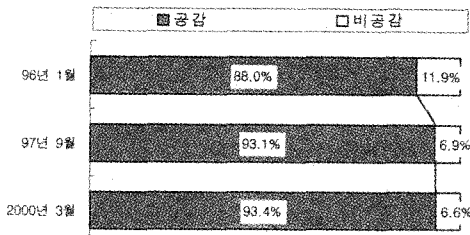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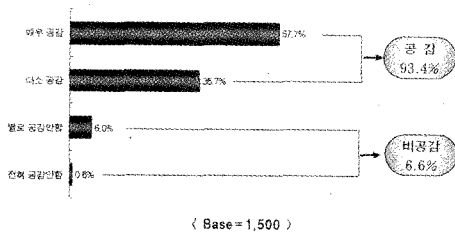




## 2 4. "환경오염은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져야 한다"는 의견

### 결과분석

□ 이번 조사에서 '공감한다'는 의견은 93.4%로 나타나, 지난 96년 1월 실시된「한국환경기술개발원」의 조사 결과(88.0%)와 비교하여 5.4% 증가되었으며, 97년 9월 「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」의 조사 결과(93.1%) 보다는 0.3%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공감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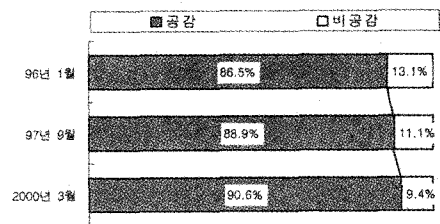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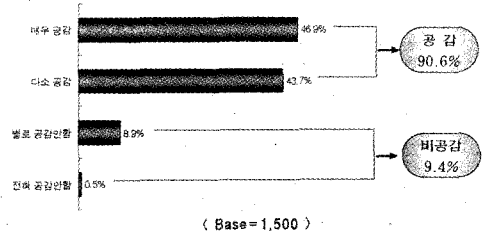


## 2 5. "문화적 혜택이 다소 떨어져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"는 의견

### 결과분석

□ 이번 조사에서 '공감한다'는 의견은 90.6%로 나타나, 지난 96년 1월 실시된「한국환경기술개발원」의 조사 결과(86.5%)와 비교하여 4.1% 증가되었으며, 97년 9월 「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」의 조사 결과(88.9%)보다는 1.7% 증가되어 공감도가 지속적으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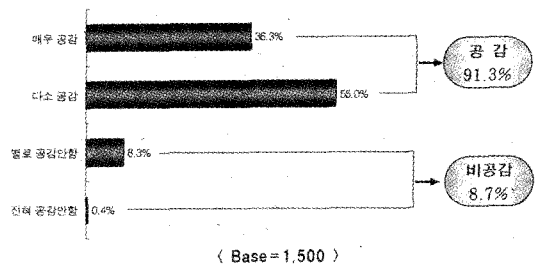
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.



## 2 6. "민간환경단체 활동의 활성화 방향으로 정책 추진해야 한다"는 의견

### 결과분석

□ 이번 조사에서 '공감한다'는 의견은 91.3%(매우 공감 36.3%, 다소 공감 55.0%)로 나타난 반면, '공감하지 않는다'는 부정적 의견은 8.7%로 나타나, 민간환경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적 배려가 요망되는 것으로 분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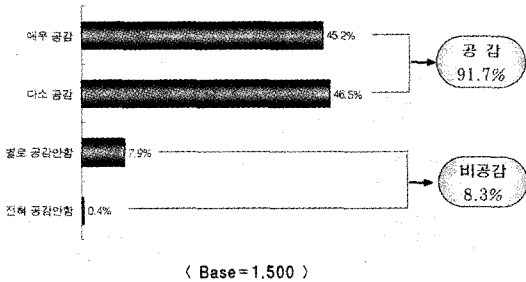




## 2 7. "21세기는 환경문제 해결능력에 따라 선후진국이 구분된다"는 의견

### 결과분석

□ 이번 조사에서 '공감한다'는 의견은 91.7%(매우 공감 45.2%, 다소 공감 46.5%)로 나타난 반면, '공감하지 않는다'는 부정적 의견은 8.3%로 나타나, 환경문제 해결능력이 국가경쟁력의 척도로 등장할 것이라는 인식의 공감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사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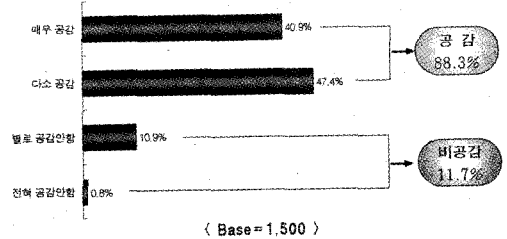


## 2 8. "환경문제 해결에서 여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"는 의견

### 결과분석

□ 이번 조사에서 '공감한다'는 의견은 88.3%(매우 공감 40.9%, 다소 공감 47.4%)로 나타난 반면, '공감하지 않는다'는 부정적 의견은 11.7%로 나타나, 여성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분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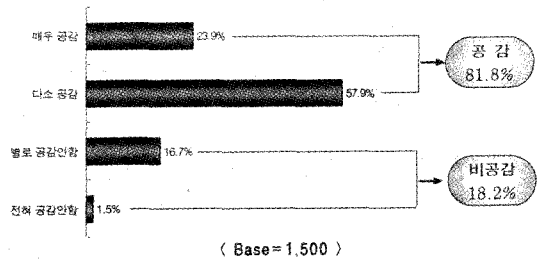
■ 환경문제 해결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여성(92.0%), 30대 이상(각 90% 이상), 기혼(91.1%), 주부(94.8%), 지역별로 부산/경남(92.1%), 대구/경북(92.0%), 학력이 낮은 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공감도가 높게 나타남.



## 2 9. "가격이 비싸더라도 환경친화적 상품을 구입할 용의가 있다"는 의견

### 결과분석

□ 이번 조사에서 '공감한다'는 의견은 81.8%(매우 공감 23.9%, 다소 공감 57.9%)로 나타난 반면, '공감하지 않는다'는 부정적 의견은 18.2%로 나타나, 환경친화 상품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태도가 상당히 호의적으로 나타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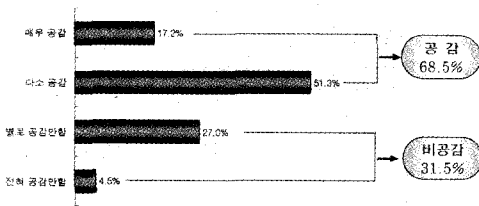
## 2 10. "상수원 보호를 위한 지원금으로 환경관련 세금을 좀더 부담할 수 있다"는 의견

### 결과분석

□ 이번 조사에서 '공감한다'는 의견은 81.8%(매우 공감 23.9%, 다소 공감 57.9%)로 나타난 반면, '공감하지 않는다'는 부정적 의견은 18.2%로 나타나, 환경친화 상품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태도가 상당히 호의적으로 나타냄.



지 않는다'는 부정적 의견은 18.2%로 나타나, 환경친화 상품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태도가 상당히 호의적으로 나타냄.



( Base = 1,500 )

### 3. 21세기 '삶의 질'에 대한 영향 요인 (※ 중복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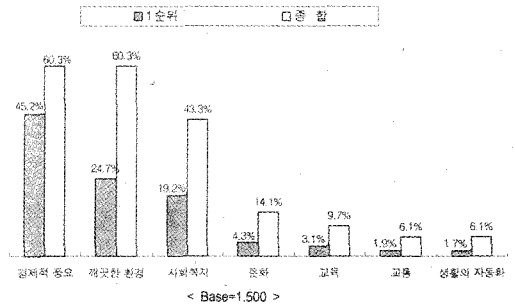
#### 결과분석

□ 21세기 '삶의 질'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'경제적 풍요'(45.2%)가 1순위로 지적됨. 그 다음으로 '깨끗한 환경'(24.7%), '사회복지'(19.2%) 순으로 나타남. 그러나 중복응답 결과에서는 '경제적 풍요'(60.3%)와 '깨끗한 환경'(60.3%)이 똑같이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로 조사됨.

□ 21세기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풍요를 지적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나, 중복응답 결과를 볼 때, '경제적 풍요'와 '깨끗한 환경' 2가지 요소 모두를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됨.(도표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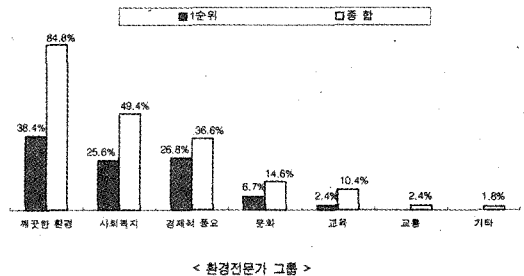
#### 결과분석

□ 21세기 '삶의 질'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환경전문가 집단은 '깨끗한 환경'(38.4%)을 1순위로 지적하였고, 그 다음으로 '경제적 풍요'(26.8%),



사회복지'(25.6%) 순으로 나타남. 그러나, 중복응답 결과를 종합하면, '깨끗한 환경'(84.8%)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, '경제적 풍요'(36.6%) 보다 '사회복지'(49.4%)가 중요한 요소로 지적됨.

□ 환경전문가 그룹의 경우, 그룹의 특성을 반영하듯 '깨끗한 환경을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됨.'



### 4. 환경관련 정보의 정보원천 (※ 중복응답)

#### 결과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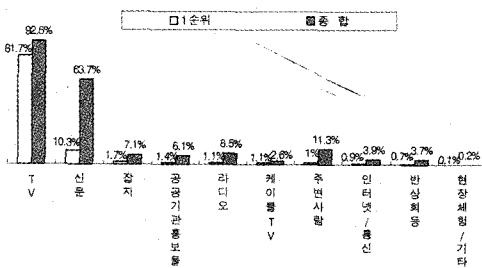
□ 환경관련 정보를 접하는 정보원천의 1순위는 TV(81.7%)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그 다음으로 신문(10.3%), 잡지(1.7%) 순으로 나타남. 또한 중복응답 결과를 살펴보면, TV(92.5%), 신문(63.7%)이 단연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'주변사람들을 통한'



## 국민환경의식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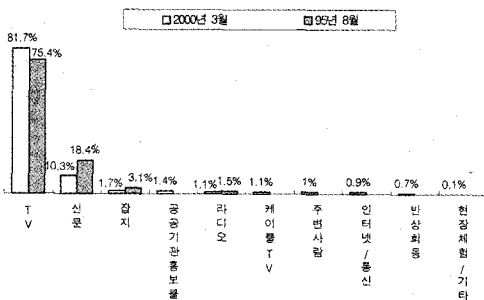
정보획득은 11.3%로 조사되어 구전(口傳)을 통한 정보획득도 중요하게 인식됨.

- 1순위 기준으로 TV를 통해 환경정보를 얻는다는 의견은 50대이상(85.8%), 대구/경북(87.4%) 거주자, 블루 칼라(86.5%), 학력과 소득이 낮고 가족수가 적은 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전체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TV, 신문 등 일반 대중 매체를 통해 환경관련 정보를 접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분석되며, 부분적으로 口傳효과에 의한 정보획득도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음.



### 결과분석

- 지난 95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, TV를 통한 정보획득 비중(6.3% 증가)은 늘어난 반면, 신문을 통한 정보획득 비중(8.1% 감소)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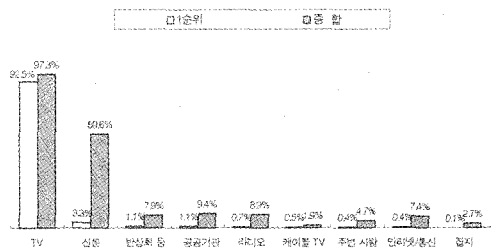
### 5. 환경관련 정보의 효율적 전달 매체 (\* 중복응답)

#### 결과분석

- 향후 환경관련 정보를 알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는 TV(1순위 92.5%, 종합 97.3%)와 신문(1순위 3.3%, 종합 59.6%)을 지적한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.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 홍보물, 반상회, 라디오 순으로 나타남. 단, 정보전달 매체로 인터넷과 PC 통신의 비중(1순위 0.4%, 종합 7.4%)은 아직까지 낮은 것으로 조사됨.

- 환경정보를 알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TV를 지적한 의견은 응답자 특성별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.

- 전체적으로 TV와 신문을 통한 정보전달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지적될 수 있지만, 향후 인터넷과 PC 통신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인터넷과 PC 통신의 적극적 활용방안 마련이 요망됨.



#### 결과분석

- 지난 96년 1월 조사와 비교해 볼 때, 가장 효율적인 정보전달 매체로서 TV를 지적한 의견은 96년 1월 82.4%에서 92.5%로 10%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, TV를 통한 정보전달의 효과는 점차 증대하는



것으로 해석됨.

6. 환경관련 교육 이수 경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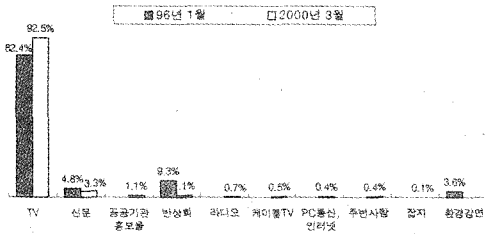
**결과분석**

□ 최근 2년동안 환경관련 교육이나 강연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, 매체를 통한 간접교육 경험이 71.4%로 가장 높게 나타나 TV 매체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음. 그 다음으로 '강사에 의한 교육'(11.6%), '현장체험교육'(8.5%), '컴퓨터·인터넷을 이용한 교육'(7.0%) 순으로 조사됨.

■ 매체를 통한 간접교육 경험은 40대(76.4%), 대구/경북(83.9%), 주부(76.1%), 학력이 높은 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  
강사에 의한 교육 경험은 대구/경북(21.3%), 학력과 소득이 높고 가족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□ TV매체를 이용한 간접교육의 경우, TV매체가 갖는 파괴력이 엄청나다라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심도 깊은 정보제공에 제한이 따른다는 점에서 향후, 강사교육이나 현장교육의 의존도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망됨.

다음호에 계속...



**결과분석**

□ 가장 효율적인 환경정보 전달매체에 대해 환경전문가 집단 역시 TV를 지적한 의견이 90.2%로 조사됨. 그 다음으로 신문(6.1%), 인터넷·PC통신(2.4%) 순으로 조사됨.

□ 환경전문가 그룹 역시 TV 영향력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국민과 별다른 차이는 없음.

